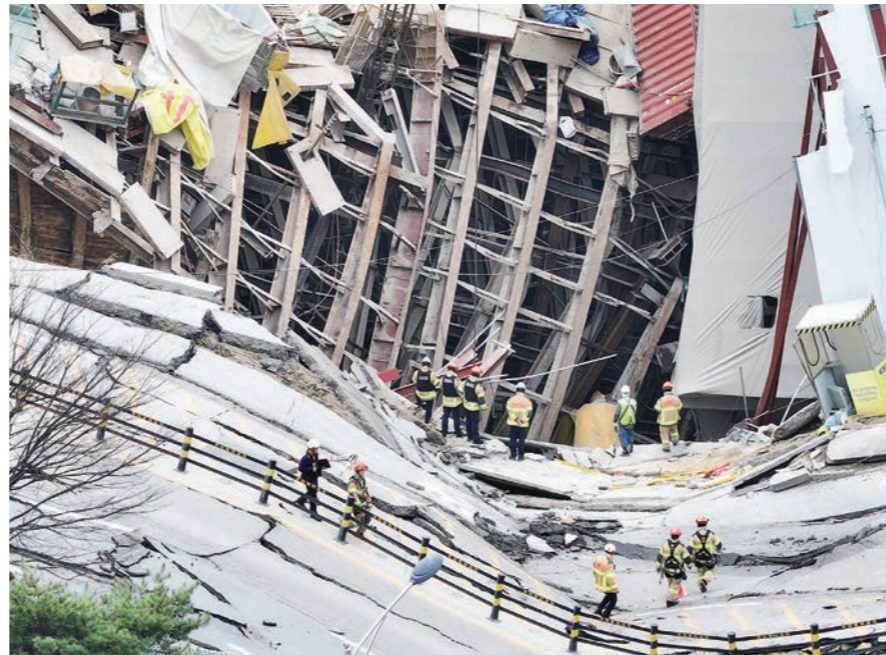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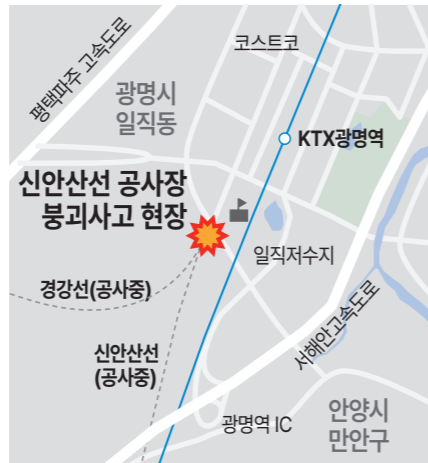


사고 예견됐는데도 “설마”... 여전히 ‘안전 불감증’

광명 신안산선 철도공사장 붕괴 일파만파

사고 17시간 전 터널 중앙 기둥에 균열... 신속 보강 안 해 단순한 시공 실패 아닌 안전관리 시스템에 총체적 문제 관계기관 공조도 ‘먹통’... 고립 1명 구조·1명 수색 계속

서울·수도권 주요 공사 현장에 ‘붕괴 공포’가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 2월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에 이어 이번엔 경기 광명 신안산선 철도공사 현장에서도 대형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전에 균열이 발견됐음에도 적절한 대응 없이 작업이 재개돼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예고된 사고’라는 비판이 거세다. 전문가들은 단순 시공 실패가 아니라 전반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시는 지하 공사 전 구간에 대한 정밀 점검에 착수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12일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식으로 중앙 지지기둥에 하중이 집중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공법 자체보다는 시공 품질 저하, 철근 보강 미흡 그리고 감독·감독의 부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구조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12년과 2014년 충남 구례터널에서 연속된 붕괴가 발생했으며 당시에도 추가 지반조사와 보강설계를 생략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사고와 최근 잇따른 지반 침하 사고에 대응해 도시철도 공사 현장과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지표투과 레이더(GPR) 탐사에 착수했다. 9호선 4단

계·동북선·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 구간 등 총 18.5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점검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사고 후 점검은 한 발 늦은 대응이라며 실질적인 구조물 안전 진단과 설계 개선·감리 체계 정비 없이는 제2·제3의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번 신안산선 붕괴 사고는 단순한 시공 오류를 넘어 총체적인 안전관리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다. 이미 감지된 위험 신호를 무시했고 관계 기관들 간의 협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현장 중심의 예방 체계 구축이 절실해 보인다. 연합뉴스 기자 hsrin@skyedaily.com

캠코, 4074억 원 압류재산 공매

부동산 1557·동산 116건 포함
감정가 70% 이하 매물 다수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총 4074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1673건을 공개 공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매는 전국적으로 채납세액 징수를 위한 압류재산 중 회수 가능성이 높은 자산을 선별해 매각하는 절차로 부동산과 동산을 아우르는 다양한 자산이 포함됐다. 공매 대상에는 부동산 1557건·동산 116건이 포함되고 이 가운데 임야 등 토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957건에 달한다. 또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도 135건을 포함한 총 257건이 공매 대상이다. 특허권·출자증권 등 일반 동산도 매각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기자 hsrin@skyedaily.com

특히 감정가의 70% 이하로 책정된 저가 매물이 751건에 달해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입찰 전 권리분석이 필수로 임차인 명도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입찰은 온비드 및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고 공매 진행 현황과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유찰 시에는 차기 공매가격이 10% 낮아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캠코는 40년간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1조6369억 원의 채납세액을 징수하면서 국가와 지방 재정에 기여해왔다. 이번 공매 역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유용한 기회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기자 hsrin@skyedaily.com

빌라도 시세·정보 ‘한눈에’

‘KB부동산’ 정보 전면 개편
시세 변동 등 맞춤형 서비스



KB국민은행이 부동산 종합 플랫폼 ‘KB부동산’의 빌라 단지정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전국 250만 가구 규모의 빌라를 16만4000개 단지로 통합 분류하고 각 단지별 가격정보와 기본정보를 종합 제공한다. 가격정보 항목에서는 ‘KB AI 시세’를 포함해 개별 실거래가·공시가격대지권비율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KB AI 시세’는 국민은행의 자체 모델링 기법을 기반으로 동·호수별 매매 시세를 산출해 대출 담보가치 평가에도 활용될 만큼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단지 기본정보 항목은 건축물 대장과

현장 자료를 기반으로 학군·평면도 등 실질적인 주거 판단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공한다. 또 사용자는 관심 단지를 등록하면 시세 변동·실거래가·금융상담 등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고 향후 실시간 매물 정보까지 제공하는 ‘관심 단지 알림 서비스’도 추가될 예정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 시장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KB부동산은 고객에게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기자 hsrin@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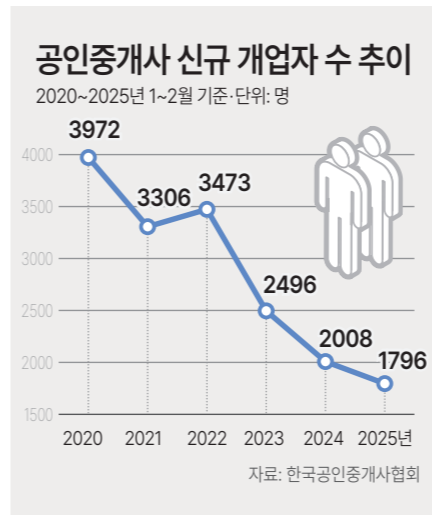
공인중개사 인기 ‘뚝’... 신규 개업 25년 만에 최저

1·2월 1796명... 시험 응시자도
시장 침체 장기화로 중개업 포화

올해 공인중개사 신규 개업자 수가 25년 만에 처음으로 2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중개업소 과잉 공급이 겹치면서 신규 진입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1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신규 개업자는 각각 871명과 925명으로 총 1796명을 기록했다. 이는 관

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1·2월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다. 최근 10년간 초봉 개업자는 통상 300~4000명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2008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는 2000명 선도 무너졌다. 이는 전통적으로 이사 수요가 많은 봄철 개업이 물리는 흐름마저 무너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도 줄고 있다. 지난해 응시자는 15만4669명으로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2017년 이후 처음으로 2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시장에 새로 진입할 유인이 적고 기존 사무소도 폐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관리금 회수가 어려워 억지로 사무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협회 홈페이지의 중개사무소 매매 게시판에는 현재 2500건이 넘는 매물이 등록돼 있다. 시장 포화 상태가 지속되면서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점차 시들어 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기자 hsrin@skyedaily.com



대동택견 전수자 과정 1기 모집 안내

1. 택견 어원

택견의 어원은 태갈이다. <태>는 '태어나다·중생하다'는 뜻이고, <갈>은 '가르치다·수련하다'는 뜻으로 이를 합치면 '인간에서 신으로 중생하는 수련'을 말한다. 씨름이 오랜 세월 동안 씨갈 → 씨가름 → 씨겨름 → 씨름으로의 용어 변천사가 있었듯이 택견도 태갈 → 태가름 → 태겨름 → 태견(태견) → 택견으로의 용어 변천사가 있었다.

2. 대동택견 소개

- 태고사에 나오는 천제 환인이 아들 환웅에게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하도록 준 천부인(天符印) 원리에 입각한 고유 무예(위대 택견 기능)
- 무예 역사와 전승 계보(삼성조 시대 - 북부여 - 삼국시대 - 일본 천황가 전래 - 신라삼랑 원의광(대동 택견 중시조) - 원정의(35대) - 덕암 최용술(36대) 환기분주 - 한풀 김정윤(37대)) 명확한 전통 무예
- 한민족 정서에 녹아드는 우아하고 수려한 몸짓과 가장 방대하고 강력한 기술 체계를 갖춘 완전 무예(아래대 택견 기능)

3. 전수자 과정 개설 목적

- 단군 임검의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이념 실천
- 삼성조 시대부터 계기까지 수련한 전통 태갈 수련법(위대 택견) 전수 - 단군 임검 탄생역사에 나오는 환웅(桓雄)·웅녀(熊女)·신단수(神檀樹)·호(虎)·웅(熊)·애(艾)·신(蔞)·굴(窟)·백일(百日)은 인간이 신으로 중생하는 태갈 수련법이나 후대에 한자로 기록되면서 인수(人獸)의 역사로 왜곡됨
- 조선시대 송문천무(崇文殿武) 정책과 일제의 민족혼 말살 정책으로 사라진 택견의 맨몸 기술 보강과 무기술 복원(아래대 택견)

4. 전수자 과정 모집 일정

- 주 최: 대동택견협회(협회장 신성준)·명지대 명상무예학과(우종웅 교수)
- 장 소: 명지대학교 미래관 6층
- 일 자: 2025.3.29.~6.14(12주) 매주 토요일 09:00~12:50
- 인 원: 선착순 10명
- 대 상: 체력훈련(힘)이 아닌 무예기법(기운) 원리를 익히는 수련으로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
- 등 록: 명지대학교 홈페이지 → 미래교육원 → 등록안내 → 전문교육과정 → 신규학습자 (원서접수 바로가기)
- 문 의: (02) 300-1816